

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보고(1차) 결과

□ 업무보고 개요

- 목 적 : 상생본부 사업계획 보고
- 장 소 : DDP살림터 3층 대표이사실
- 참 석
 - 서 울 시: 서정협 대표이사직무대행, 김정열 디자인기획팀장
 - 재 단: 최구환 상생본부장, 안재선 디자인사업팀장, 김수정 전시사업팀장, 유성자 교육사업팀장, 전기현 디자인공예산업팀장, 이상목 기획경영팀장, 서혜영 책임

○ 진행순서(계획)

연번	시간	내용	보고자
1	15:30~15:40	본부현황 보고	상생본부장
2	15:40~15:50	디자인사업팀 업무보고	디자인사업팀장
3	15:50~16:00	전시사업팀 업무보고	전시사업팀장
4	16:00~16:10	교육사업팀 업무보고	교육사업팀장
5	16:10~16:20	디자인공예산업팀 업무보고	디자인공예산업팀장
6	16:20~16:50	강평 및 토론	다같이

□ 회의록

○ 보고시간: 15:30~18:00

○ 대표이사 직무대행 핵심요지

- 직무대행: 업무과약을 위해 준비된 자리이므로 주로 듣는 자리를 삼겠음

〈디자인사업팀〉

- 안전안심디자인 사업은 확대돼야할 사업으로 사업 브랜딩 다시 검토.
- 컨설턴트 사업은 유사한 사업간 중복성을 디자인정책과와 협의하여 통합·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.
- 을지로 라이트웨이 사업은 지역산업에 정말 기여를 하는지 현황분석을 종합적으로 해보아야 함. 주로 조명이 중국산이라 사업기여도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음. 판매와 행사 위주가 아니라 행사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함. 예산편성은 되어있지 않은 점은 대표의 의지가 필요한 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재단에서부터 편성해야 함. 서울시 협조를 꼭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. 브랜딩은 다시 고려해보도록.
- 동대문마켓 사업에서 진행하는 협의회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업임. 행사를 계기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며 이 또한 브랜딩이 필요함. DDP 디자인마켓과 동대문스타일페스타는 구분이 잘 안 가므로 차별화가 필요함.
- 크레아는 단순 대관이 아닌 기획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판단됨.
- DMC 창업센터도 네이밍이 세련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필요함.
- 인큐베이팅 사업은 디자인재단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차별화 필요함.

〈전시사업팀〉

- 서울디자인위크는 올해 5년차이므로 정립이 되어야 하며 아이덴티티가

확실해야 함. 매 해 컨셉이나 구성이 동일한 것 같으므로 개선이 필요함. 서울시와 협조하여 지원을 받아 홍보를 활성화해야 함. 디자인정책과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타 문화재단, 문화정책과, 예술과 등과 협력이 필요함. 시기는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함. 9~10월은 국제행사가 많으므로 너무 물리지 않도록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. 홍보매체는 서울시 것을 충분히 활용할 것. 문화본부 주간회의 때 특히 타 부서나 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피고 협력하고 연계해야 함.

- 신진디자이너 육성 사업도 홍보에 주력하여야 함.

〈교육사업팀〉

- 아이들은 미래 자산이므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함. 멤버십 구성을 고려하여 전시관람 할인, 특강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함.
- 디자인라이브리리는 서울의 대표 디자인 브랜치 도서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음. 80평의 규모는 작으므로 효율적이고 트렌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할 것. 더 나아가 향후 대표 도서관으로서 자료 이관을 검토해볼 수 있음.
- 투어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은 자유학기제 영향일 것으로 판단됨. 학생들은 자원봉사자 양성해서 진행도 검토할 것. 외국인 투어도 필요할 것 같음.
- 심화콘텐츠, 스페셜투어, 전문가투어 등이 중요함.

〈디자인공예산업팀〉

- 주관부서는 문화정책과에서 디자인정책과였다가 고유사업으로 이관됨. 최초에 시장님 관심에 따라 진행되었다가 백화점식으로 펼쳐진 것 같음. 특히 민선7기를 맞이하여 디자인정책과 주관으로 '16~'18년도 사업 점검을 하고 전반적인 정책 검토 및 사업 평가가 필요함. 또한 공예박물관과의 관계성 검토하여 개관 후 상황을 고려해야 함. 대상 및 타겟이 불분명해 보임. 디자인정책과 내 담당부서가 필요함.